

남북한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의미와 방향*

한 승 호

(선문대학교 동북아학과 강사)

요 약 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각각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분단 반세기 동안 남과 북이 서로 단절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 전반적으로 이질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한 간의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체제에서의 제도적 통일, 즉 남북한 단일정부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예멘 사례에서 드러나듯, 23년 전 정치적 일괄타결 방식에 의해 통일정부가 구성되었지만 예멘은 여전히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각 부문에서 통합을 완결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 한반도에서 제도적 통일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남북한 주민 간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예멘처럼 사회 갈등 및 혼란은 통일 이전보다 더 가중될 수도 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제도적 통일과 더불어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 통합을 위한 준비까지 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통일 및 통합을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이 필요하며 남북교류협력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사회문화 영역은 분단으로 야기된 남북한 간의 이질적인 문화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은 사회문화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은 후진적인 북한 사회문화를 남한 사회문화처럼 근대화시키겠다는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문화적 상대주의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사회는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에 있어서 북한을 근대화론 입장에서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때이다.

* 이 논문은 2013년 10월23일 선문대학교 국제다문화연구원이 개최한 “2013년도 선문대학교 통일포럼-남북 통일문화와 통일아리랑”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한반도에서의 통일이 막연하게 당장 이루어지기 힘든 현실 속에서 남북한 간 사회문화 통합은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접근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간 사회문화적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을 통하여 서로 다른 사회문화를 확인하고 상호간의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폐쇄적이고 경직된 북한의 사회문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횡수를 늘려야 함은 물론,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북한사회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및 인식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남북관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일문화, 남북한 사회문화

【 目 次 】

I. 서론	IV. 남북한 사회문화 동질성 회복 방안
II. 남북한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의미	V. 남북한 사회문화교류협력의 방향
III. 남북한 사회문화 이질화 현황	VI. 결론

I. 서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각각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분단 반세기 동안 남과 북이 서로 단절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 전반적으로 이질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한 간의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체제에서의 제도적 통일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통합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예멘 사례에서 드러나듯, 23년 전 정치적 일괄타결 방식에 의해 통일정부가 구성되었지만 예멘은 여전히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각 부문에서 통합을 완결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 한반도에서 제도적 통일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남북한 주

민 간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예멘처럼 사회 갈등 및 혼란은 통일 이전보다 더 가중될 수도 있다. 이에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통일 준비와 사회문화적인 부분에서의 통일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남북통일 및 남북통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한반도에서의 통일과 통합을 위한 추진과정에서 끊임없는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지 않기에 남북교류협력을 보는 시각은 크게 보수적, 진보적으로 양분되어 있다. 보수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보는 시각은 북한의 변화 혹은 변화 의지가 전제되어야 남북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진보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보는 시각은 남북교류협력의 과정에서 제한적이지만 북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북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성격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다르다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의 접점을 찾기 어렵지만 양측 모두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이 단절된 남한과 북한을 서로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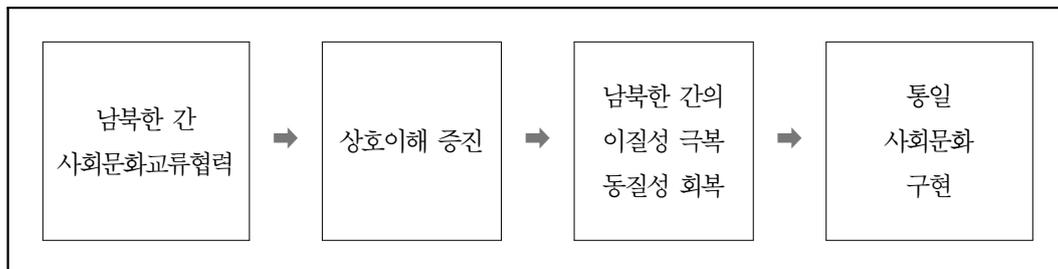
한반도에서의 통일과 통합을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이 필요하며 남북교류협력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사회문화 영역에 관하여는 분단으로 야기된 남북한 간의 이질적인 문화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은 사회문화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에 있어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의 의미와 이질화의 정도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남북한 간의 이질화된 사회문화를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발전적인 방향의 남북한 사회문화교류협력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모색해 볼 것이다.

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¹⁾의 의미

최근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체제 혹은 제도적 통일이라는 당위론적 접근과 더불어 분단으로 이질화된 남북한의 사회문화 통합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관심이 늘고 있다. 통일논의에 있어서 남북한 간 사회문화적 이질성 극복방안 및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사회문화적 통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심과 연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정착한 2만 6천 명 가량의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북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북한 영화, 음악, 소설 등의 문학예술을 접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용이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는 한반도 통일 사회문화 구현을 위해 남북한 간 사회문화교류협력이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는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이 지금보다 더욱 활발해지면 통일 사회문화도 곧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 사회문화 구현에 있어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이 필요조건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표 1> 사회문화교류협력의 목적과 방향



위 <표 1>에 나타나듯,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교류협력은 상호이해 증진에 도움이 된다. 여기서 남북한 간 상호이해의 증진은 남북한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쌓아

1) 사회문화교류협력은 개념상 광범위하며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기에 정의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에서 이해되는 사회문화는 정치와 경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을 지칭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은 학술, 문화예술, 종교, 체육, 언론출판, 과학기술 등으로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조한범, “남북한 이질화와 사회문화교류협력”, 『남북한 관계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쟁점과 대책』, 통일문제 특별학술회의 자료집(1997.11.8.), p. 168.

분단으로 야기된 이질화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여 통일문화를 구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하여 남북한 간 인적 왕래와 교역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남북교류협력이 급격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을 통하여 분단 이후 이질화된 남북한 간 사회문화를 극복하고 통일문화를 구현한다는 구상이 단순히 우리의 소망인 것인지에 대해 이제 냉철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을 통해 우리가 북한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장점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사회와 문화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에 이견은 없다. 그러나 분단 이후 남한은 자본주의문화 속에서, 북한은 사회주의문화 속에서 각각 서로 다른 문화를 형성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적대시해 왔다. 다시 말해서 이는 남한식 자본주의문화에 익숙한 일반대중이 낮은 북한 사회주의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워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고교과정)에 전학 온 A양은 “탈북자라고 밝혔더니 일진들이 ‘빨갱이’, ‘거지’라고 욕하고 괴롭혀 견딜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탈북청소년 B군은 “학교에서 탈북자 출신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학급 애들이 무시하고 따돌렸다”며 “자존심이 상해 공격적인 태도로 애들을 대했더니 나중에는 담임선생님까지 나를 성격이상자 취급을 하더라”라고 말했다.²⁾ 위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반공주의문화가 사회 저변에 만연해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문화를 저급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다. 이는 북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남북한 간 사회문화교류협력을 양적으로 확대시키는데 주력하면 오히려 북한과의 사회문화적 차이가 크다는 것만 확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2000년 이후 각 대학에서 개최되었던 북한 영화제, 여러 국제대회에서 남북한 공동 입장, 남북 간 언어 및 재외교포 사용 언어를 하나로 종합 정리하는 사업인 겨레말 큰 사전편찬 사업, 종교 간의 교류협력, 예술공연단 교환공연, 남북공동학술세미나 등 우

2) 『연합뉴스』, 2012년 10월 12일.

리 사회는 사회문화적으로 북한과의 접촉 빈도수가 상당히 높았다. 2000년 전후로 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양적 증가와 탈북자의 국내 입국 증가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는 북한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졌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북한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핵실험, NLL도발, 미사일 발사, 대남 비방 등을 재개 및 중단을 반복하면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으로 이어졌고 남북한 간에 여전히 신뢰보다는 불신이 팽배한 상태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졌고, 북한을 협력의 대상이 아닌 경계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³⁾ 이는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북한과의 사회문화교류협력이 추진될 경우 반복의식이 더욱 확대되고, 오히려 문화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북한과의 단절이 남북한 간의 이질화된 사회문화를 극복하고 통일문화를 이룩하는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지난 15년 간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사업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북한의 사회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고 남북한 사회문화 이질화의 정도가 충격적으로 크다는 것을 체감하게 하였다.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으로 인하여 불거진 부정적인 면은 단순하고도 막연히 생각했던 한반도 통일에 대해 현실적인 접근을 하도록 유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이 양적으로 증가된다고 해서 이질화된 남북한 사회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북한과의 사회문화교류협력을 꾸준히 지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은 남북한 간 사회문화의 이질성 정도를 확인시켜주며 나아가 남북한 사회문화를 통합하고,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적 이질성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은 이질화된 남북한 사회문화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매개체라 하겠다.

3) 2010년과 2011년, 2012년 KBS의 조사에서는 북한에 대해 ‘경계대상(32.8%, 26.3%, 37.4%)’ 인식이 ‘협력대상(21.7%, 25.8%, 29.2%)’의 인식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KBS남북협력기획단, “국민 통일의식 변화 추세” 『2012년 국민 통일의식 조사』 (서울: KBS남북협력기획단, 2012), p. 83; 2014년 3월 24일 순천향대에 따르면 최근 통일부장관 초청 통일과 관련한 토크콘서트를 열면서 재학생 1천 160명을 대상으로 남북통일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반대가 57.9%(672명)로, 찬성 42.1%(488명)보다 15.8% 포인트나 높았다. 『연합뉴스』, 2014년 3월 24일.

Ⅲ. 남북한 사회문화 이질화 현황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남한과 북한 주민은 서로 다른 두 체제 하에서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 남북한 간 사회문화 이질화가 심화된 것은 남한과 북한의 이념적 지향이 다르기에 나타난 결과이다. 남한과 북한의 이념적 지향이 다르다는 것은 주민들의 사고방식 역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질화된 남북한 사회문화는 이질화의 근원인 이념과 이로 인해 서로 달라진 주민들의 사고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서로 다른 이념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문화적 이질화는 남북한 문화통합의 저해요인이다. 우리 사회에서 문화는 “한 사회 집단의 역사적 산물인 동시에 사회구성원들 생활사의 산물로서 개인의 태도와 경험뿐만 아니라 집단의 공적인 사건과 이데올로기, 민족정신, 국민의 기본가치 등을 설명하는, 즉 전체적이고도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⁴⁾ 우리와 달리 북한은 문화를 주체사상 실현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⁵⁾

예컨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한이 선수단과 더불어 대규모 응원단까지 남한에 파견한 적이 있다. 2003년 8월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당시에 북한 응원단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악수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이 비에 젖은 걸 발견하자 버스에서 내려 현수막을 떼어내며 “장군님 사진에 어떻게 비를 맞히냐?”고 항의하고 눈물을 흘렸다. 이 사건 이후 대구의 한 경기장에서는 북한의 인공기 훼손을 막기 위해 우리 경찰이 특별 경계까지 한 바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이와 같은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 사회에서는 혁명적 수령관이나 사회정치적생명체론⁶⁾ 등이 사회적 문화(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이다. 특히 북한의 유일사상체제는 혁명적 수령론에 그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으며 북한사회 문화에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⁷⁾

4) 이경숙, “남북한 사회문화의 특성”, 『남북한 사회문화 비교』 (서울: 숙명여자대학교출판사, 1999), pp. 20-21.

5) 이인정, “남북한사회문화 통합과 전통문화의 역할”, 『남북한 사회통합론』 (서울: 삶과 꿈, 1997), p. 199.

6)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이 개개인 생명의 모체라는 집단주의적생명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생명 가운데서도 육체적 생명보다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며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적집단의 생명이 더 귀중합니다.”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64; 김형일,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 『근로자』 1호 (평양: 근로자사, 1988), pp. 16-21.

7) 정우곤, “주체사상의 혁명적 수령론 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6권 1호, 1990, pp. 190-191.

북한에서는 비오는 날에 김일성 동상과 김정일 초상화를 큰 천으로 가리는 것이 문화이며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북한의 이러한 문화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이후 그의 운구차량이 지나가는 길에 주민들이 외투를 벗어서 길을 만드는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였다. 북한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러운 것은 이데올로기가 정치와 이념, 사상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평가하고 지도하는데 동원되는 제반 가치관의 체계로 문화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⁸⁾

둘째, 다원주의 문화 속의 남한사회 문화와 폐쇄적이고 중앙 집중화된 북한사회 문화는 전혀 다르기에 남북한 주민들의 사고방식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남북한 주민들의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남과 북이 접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예술단체 간의 교류에서는 남북의 동질감이 확인된 순간 어떤 사람이 너무 기쁜 나머지 “대한민국 만세!”하고 외쳐버렸다. 행사가 한순간에 파산되었음은 물론이다. 이 같은 일은 남북 교류에 전문적인 사람들 간에도 일어난다. 금강산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천출명장’이라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이를 보고 남측관계자가 농담을 한다는 것이 하필 “저건 천민출신이라는 뜻입니까?”였다. 이 사소한 실수 하나는 수십 년의 피눈물이 담긴 이산가족의 상봉을 중단시켜 버렸다.⁹⁾ 이는 북한이 국가, 개인, 사회의 구분 없이 “하나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와 같은 전체주의적 성격의 사회이기 때문이다.¹⁰⁾

분단 이후 남북한은 60년 이상을 상호 이질적인 체제에서 존재해 왔기 때문에 상호 간의 문화적 이질감과 오해는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감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물론 ‘선 제도적 통일, 후 사회문화적 통합’을 통해서도 남북한 간 사회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문화 통합은 제도적 통일과 달리 한순간에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문화를 통합하는 것은 인간 생활양식의 총체이기 때문에 사회적 행동 양식, 사회적 생활양식

8) 남인숙, “남북한 사회문화에 내재한 가부장성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3권 1호, 1999, pp. 180-181.

9) 김형수, “‘겨레말 큰사전’은 우리에게 무엇이어서 하는가”, 『겨레말 소식』, 창간호, 2006, p. 28.

10) 오기성, “북한의 규범문화 연구”, 『국민윤리연구』 38호, 1998, p. 273.

등을 통합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은 제도적 통일과 달리 통합의 과정이라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장기간에 걸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을 통해 이질화된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IV. 남북한 사회문화 동질성 회복 방안

남한의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를 지탱하는 가치체계에 내재하는 기본 개념이자 그 자체를 목표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¹¹⁾ 반해, 북한은 문화를 정치, 경제, 사회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개념으로 간주하고 있다.¹²⁾ 이는 남북한 주민들의 가치의식 이질화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남북한 주민의 가치의식 비교

	남한	북한
<이념적 가치체계>	시장경제적 가치관 * 개인주의 * 진취성 * 경쟁적 * 자율성	사회주의적 가치관 * 집단주의 * 수동성 * 협동성 * 단결성
<사회적 가치의식>	* 개방성 * 개인적 권리 * 합리성 * 사교성	* 독자성(폐쇄성) * 조직전체의 이익 * 충실성 * 열정성
<선호되는 가치순위>	1. 행복한 가족관계 2. 편리한 삶 3. 자유 4. 타인의 인정 5. 국가의 안정 등	1. 국가의 발전 2. 평등 3. 편안한 삶 4. 행복한 가족관계 5. 자유 등

출처: 이장호, “남북한 의식구조의 격차와 통일교육에의 시사점”, 『제3회 통일대비 교육포럼』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7. 4), p. 11.

11) 이경숙, 앞의 책, pp. 20-21.

12) 북한에서 문화는 “력사 발전의 행정에서 인류가 창조한 물질적 및 정신적 부의 총체, 문화는 사회발전의 매단계에서 이룩된 과학과 기술, 문학예술, 도덕과 풍습 등의 발전 수준을 반영한다. 문화는 사회생활의 어떤 영역을 반영하는가에 따라 물질문화와 정신문화로 구분된다. 매개 나라의 문화는 자기의 고유한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계급사회에서 문화는 계급적 성격을 띤다”고 명명하고 있다.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 『조선말 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1185.

위 <표 2>에서 드러나듯이 북한은 남한과 달리 사회주의적 가치관이 사회 전 구성원들에게 내재해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남북한 간 사회문화의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회복이라는 테제는 저급한 북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우월한 남한 문화를 북한 사회에 이식시키겠다는 제국주의적 문화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은 우리와 다른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체제에서 존재하는 ‘시민’의 개념이 없다. 북한 주민들은 ‘사회주의적 가치관’에서 ‘시장경제적 가치관’으로의 전환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회 전 구성원들은 남한식 가치체계·가치의식에 적응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남북한 간의 이질화된 사회문화는 남과 북의 새로운 결합이 아닌 북한 사회문화의 남한 사회문화로의 흡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의 제국주의적 문화통합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해 정착지원금 지급 및 취업·교육·의료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비, 정착지원금, 보조금 제도 등을 통하여 오히려 과보호하고 있을 정도이다.¹³⁾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 삶의 질은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들의 범죄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¹⁴⁾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지는 것은 우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와 정책이 급증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와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제도적 문제로 야기된 것만으로 볼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가장 크다.¹⁵⁾ 실제로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인 북한이탈주민들의 큰 고충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을 통하여 이

13) 박영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현황과 방향”, 『인권복지연구』 13호, 2013, p. 74.

14)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이탈주민 범죄는 총 1687건이다. 북한이탈주민 전체 인원 중 10%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주민의 연평균 범죄율이 4.3%인 데 비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율은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는 1990년 이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범죄 발생률 5.5%(국내 거주자 414명 중 23건)에 비해서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범죄 내용 면에서도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범죄 발생이 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교통사범, 폭력이 주된 범죄였다면 최근에는 강도살인 미수, 마약, 국가보안법 위반 등 강력 범죄가 증가하는 것이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주간동아』, 2008년 8월 27일.

15) 서한승 외, 『북한이탈주민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5) 참고.

질화된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를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할 수는 없다.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이 남북한 간 사회문화 통합을 위해 필요조건이지만 우리 사회가 북한의 사회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

<표 3> 1989년 1월-2014년 2월까지의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사업 현황

	방북 현황	방남 현황	총계
교육학술	308건 3,706명	11건 101명	318건 승인 3,807명
문화예술	157건 2,446명	8건 540명	165건 승인 2,986명
과학기술	73건 400명	0건 0명	73건 승인 400명
체육	318건 4,155명	26건 2,147명	343건 승인 6,302명
종교	461건 9,195명	3건 59명	464건 승인 9,254명
언론출판	303건 2,949명	3건 60명	306건 승인 3,009명
사회문화교류 합계	총 1,620건 승인 총 22,851명 방북	총 51건 승인 총 2,907명 방남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편,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3), pp. 189-227; 통일부 편, 『남북교류협력 동향』 1호-272호 (서울: 통일부, 1981), 참조.

위 <표-3>에 나타나듯이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은 학술, 예술, 과학, 체육, 종교, 언론·출판 등의 각기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을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북한 사회 변화 및 체제를 개혁·개방화할 수 있을 것인지, 장기적으로는 통일문화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물론, 북한 연인들 사이에서 ‘한류바람’이 거세게 불어 ‘100일 기념일’을 챙기거나 친족에게만 쓰는 ‘오빠’라는 호칭을 연상의 남자친구에게 사용하고 커

플자전거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평양에서 볼 수 있다.¹⁶⁾ 더욱이 2001년 10월 9일 북한은 ‘109그루빠(일명 109상무)’를 조직하면서 검열을 강화하고 ‘자본주의 황색바람’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 북한 사회가 곧 변화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북한에 남한 및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인 영화·드라마·음악 등 정보의 유입은 1995년 고난의 행군 시기를 전후로 하여 시작되었다. 20여년 이상 북한 사회에 남한을 비롯한 자본주의 문화가 유입되었지만 1990년대 중반의 북한 사회와 비교하여 현재 북한 사회가 크게 변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을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북한 사회에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를 통합하기 위한 깊은 성찰을 해야 하고 어떠한 실천적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 사회문화의 차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북한 문화를 ‘차이(gap)’가 아닌 ‘다름(difference)’으로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우리 사회의 문화를 한층 발전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에 있어서 상대주의를 전제로 한 교류협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은 북한의 사회문화 개방을 의미함과 동시에 남한의 사회문화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에 있어서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황색바람’이 북한 사회 전역에 확산되어 김정은 중심의 정치체제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을 통하여 북한 사회문화가 개방된다고 하여 북한 체제가 위협을 받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1998년 10월 김대중 정부는 일본 문화를 단계적으로 개방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개방이 이루어졌다.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일본에 문화를 개방하면 다 죽는다”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크게 일었다. 일본 문화가 개방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문화는 일본 문화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에서 한류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즉 북한 역시 문화를 대외적으로 전면 개방한다고 하여

16) 탈북자 최모 씨는 “북한 젊은이도 이제는 100일째 만남을 챙기고 선물을 주고받는다”면서 “심지어 호칭마저 한국처럼 여자가 남자에게 ‘오빠’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모습을 흉내 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13년 7월 5일.

북한 사회가 남한 사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이 발전적 방향으로 전개되려면 저급한 북한의 사회문화가 우월한 남한의 사회문화로 흡수되어야 한다는 제국주의적 문화통합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사회문화 전체가 문제없고, 북한의 사회문화 전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발전적 방향의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은 우리의 사회문화 장점과 북한의 사회문화 장점을 각각 찾아 수용함으로써 발전된 하나의 통일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에 남한과 북한은 사회문화교류협력에 있어서 상호간의 입장 차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상호간의 입장 차이는 남북한 간의 상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질화된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를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V. 남북한 사회문화교류협력의 방향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이 시행된 이후 남북한 간 교역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경제교류와 더불어 사회문화부문에서의 교류도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더욱이 2000년을 전후로 하여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교류협력이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4>에 나타나듯이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한반도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지는 못했다.¹⁷⁾

<표 4> 남북한 간 사회문화협력의 분야별 성과와 한계

분야	특징	성과	한계
종교	2008년 이후에도 중단없이 접촉을 지속한 유일한 분야	교류의 지속성, 종교 건물의 복원 및 개축은 문화재 보존에 기여	교류의 비대칭성, 단순지원 수준의 교류

17) 남북경제협력 및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은 상호 이해를 확대하여 남북한의 통합을 촉진시키는 것이기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남북관계와 정치·군사적으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북한의 핵실험 및 무력도발과 같은 행태는 남북교류협력의 질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보혁갈등도 조장하고 있다.

체육	남북간 상호왕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짐 사회문화협력 가운데 북한에서 남한으로 방문 건수와 인원이 가장 많은 분야	국제대회 공동 입장으로 한민족 과시, 대규모 상호왕래 추진	교류의 정례화 미흡
교육학술	역사분야 등 상대적으로 이념 충돌이 작은 범위부터 협력 추진	역사유적 발굴 UNSCO 등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	교육분야의 협력은 단순 지원 수준
언론출판	남북간 공동 작업 진행 등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교류 추진	북한 주민의 참여 유도, 민족 언어와 문학의 공감대 형성	저작권 교류 관련 제도적 장치 미비
문화예술	남북 사회문화협력 가운데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	남북공동행사의 지속적 개최	공연교류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침, 영화교류도 초보적 수준
과학기술	북한의 우수한 인력이라는 인적 인프라 구비,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로 제도적 한계 내재	IT 분야의 성공적 협력, 인력 양성효과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 제도적 제약

출처: 이해정,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의 특징과 과제”, 『통일경제』 겨울호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2013), p. 60.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사업은 초기에 미국·일본·중국 등의 제3국에서 진행되었지만 현재는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남북한 간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통하여 상호 다름을 확인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통합을 구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반면에 지금까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사업은 교류협력 자체가 제한적이고, 또 사업 중심이어서 그 자체로 교류협력을 진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¹⁸⁾ 즉 정치·군사, 외교적 상황에 따라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문제,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전문성의

18) 남북한 간 대중문화교류의 문제점은 1. 남한 대중문화 중심의 편향된 교류협력이었다. 2. 특정분야의 문화류에 집중되어 추진되었다. 3. 북한의 대중문화가 남한에 소개되는 경우는 극소수였다. 이우영, “남북간 대중문화 교류의 현 상황과 미래”, 『플랫폼』 26호, 2011, pp. 29-33.

확보 문제, 일회성·이벤트성 행사로 그치는 문제, 제도적 장비 미비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군사와 사회문화를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한 간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사회문화교류협력과 관련된 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치·군사와 사회문화를 분리하여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하였던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의 구성’ 문제의 경우 남북사회문화교류의 기본적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합의 이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밀려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이 외형적으로는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정부와 관련 있는 기관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은 정치 예측화 문제에서 탈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 그 의미가 희석되는 것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은 말 그대로 사회 및 문화 교류 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선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¹⁹⁾

둘째, 장기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더라도 반드시 남북한 간 신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²⁰⁾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는 동반자 의식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상호간의 불신과 대결 의식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정치적 통합을 넘어 미래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함께 발전적 방향의

19) 전영선, “2000년 이후 남북사회문화교류에 대한 평가와 전망”, 『월간 아태지역동향』 2월호, 2006, p. 18.

20)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영변의 5MW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으로 의심하며 특별 사찰을 요구하자 북한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며 1차 북핵 위기를 촉발시켰다. 또한 북한은 2005년 4차 6자회담에서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NPT체제에 복귀하는 내용의 9.19공동성명에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으로 긴장을 고조시켰다. 2012년에는 미국과의 2.29합의를 통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기로 약속한 지 두 달 만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남북 경제협력 합의에서도 북한은 1998년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하며 사업 주체인 현대아산에 건물, 시설 등에 대해 50년 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08년 박왕자씨 피살 사건을 거치면서 긴장감을 높였고 2010년 자산을 몰수 및 동결하고 관리인원을 추방하며 1조 원 가량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이처럼 북한은 도발을 감행해 제재를 받고 냉각기를 거치다가 관계 개선 제스처를 통해 미국 등과 잠정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뒤 보상을 받으면 또 다른 도발을 시도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일보』, 2013년 4월 10일.

한반도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신뢰기반이 선결되고 확대·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과학기술 등의 다양한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은 남북한 주민들 간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뢰기반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간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기 보다는 지속가능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사업이 되도록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²¹⁾

셋째,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이 지속발전가능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사회문화교류협력과 관련된 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이,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가, 1997년 6월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등이 각각 제정되면서 남북한 간 사회문화교류가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물론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대폭적으로 개정된 바 있다.²²⁾ 그러나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을 추진하거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작금의 제도적 장치로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동서독의 경우, 1970년 우편협정, 1971년 베를린협정, 1972년 통행협정, 1972년 기본조약, 1974년 체육·보건협정, 1986년 문화협정, 1987년 방송협정 및 과학·기술협정 등 사회문화교류와 관련하여 각종 협정을 체결하였다. 1986년 5월 동서독 간 문화협정 체결시 문화의 개념을 연극·문학·음악·미술 분야를 포함한 교육, 학문, 출판, 도서관, 역사적인 문서, 대중매체, 스포츠, 청소년 분야까지 확대하였다.²³⁾ 이와 같은 동서독 간의 구체적인 협정 사례는 현재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에 있어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인 정치의 예측화 문제, 투명적이지 못하고 이벤트적인 사업,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 등을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사업에 있어서 불

21) 변중현, “남북한의 신뢰형성에 관한 비판적 논의”, 『윤리연구』 93호, 2013, pp. 365-366.

22) 2005년 5월 31일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주민접촉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 2)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를 ‘민족내부의 거래’로 명문화, 3) 과태료를 제재조항으로 신설 등의 내용이다. 2009년 1월 30일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주민접촉신고 면제근거 신설, 2) 교역대상자 지정제도 폐지, 3) 협력사업자 승인제도 폐지 및 협력사업 신고제도 도입, 3) 행정조사제도 마련, 4) 업무위탁근거 신설 등의 내용이다. 통일부 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설집』 (서울: 통일부, 2009), p. 6.

23) 이해정,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의 특징과 과제”, 『통일경제』 겨울호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2013), p. 62.

거진 문제는 시간과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지만 제도적 장치 마련 없이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사업이 지속발전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VI. 결론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이 필요하다.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은 후진적인 북한사회 문화를 우리사회 문화처럼 근대화시키겠다는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문화적 상대주의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사회는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에 있어서 북한을 근대화론 입장에서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때이다.

한반도에서의 통일이 막연하게 당장 이루어지기 힘든 현실 속에서 남북한 간 사회문화 통합은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접근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남북한 간 사회문화적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을 통하여 서로 다른 사회문화를 확인하고 상호간의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폐쇄적이고 경직된 북한의 사회문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횡수를 늘려야 함은 물론,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북한사회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및 인식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반세기 넘게 이어온 한반도 분단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 영역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분단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에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고 이는 서로 다른 문화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는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질화를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다행히도 남한과 북한은 단일 민족으로서의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은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남한과 북한에 새롭게 형성된 서로 다른 문화를 기반으로 상호발전적인 측면에서 사회문화 통합을 위한 접근을 시도한다면 미래지향적인·발전적인 문화통합의 면모를 이루어낼 수 있다.

문화란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물질과 같이 생동하는 것이다. 결국 문화는 다른 문화와의 교류를 통하여 충돌하거나 융합되면서 새로운 문화를 생산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어 낸다.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역시 남한의 사회문화와 북한의 사회문화가 서로 융합되면서 발전적 형태의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을 통하여 남북한 간 사회문화의 동질성 회복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북한 사회문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인식이 편견에서 포용으로 바뀔 때 진정으로 발전적인 통일 사회문화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접수: 2014. 4. 18. / 심사개시: 2014. 4. 18. / 게재확정: 2014. 5. 2.)

참 고 문 헌

-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형수, “‘겨레말 큰사전’은 우리에게 무엇이어야 하는가”, 『겨레말 소식』, 창간호, 2006.
- 김형일,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 『근로자』 1호 (평양: 근로자사, 1988).
- 남인숙, “남북한 사회문화에 내재한 가부장성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3권 1호, 1999.
- 문화체육관광부 편,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3).
- 박신의, “남한과 북한, 통일의 문화적 조건”, 『국학연구』 10집, 2007.
- 박영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현황과 방향”, 『인권복지연구』 13호, 2013.
- 변종현, “남북한의 신뢰형성에 관한 비판적 논의”, 『윤리연구』 93호, 2013.
-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 『조선말 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서한승 외, 『북한이탈주민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5).
- 오기성, “북한의 규범문화 연구”, 『국민윤리연구』 38호, 1998.
- 이경숙, “남북한 사회문화의 특성”, 『남북한 사회문화 비교』 (서울: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1999).
- 이인정, “남북한사회문화 통합과 전통문화의 역할”, 『남북한 사회통합론』 (서울: 삶과 꿈, 1997).
- 이우영, “남북한 문화의 이질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과학논집』 33권, 2003.
- _____, “남북간 대중문화 교류의 현 상황과 미래”, 『플랫폼』 26호, 2011.
- 이장호, “남북한 의식구조의 격차와 통일교육에의 시사점”, 『제3회 통일대비 교육포럼』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7. 4).

이해정,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의 특징과 과제”, 『통일경제』 겨울호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2013).

전영선, “2000년 이후 남북사회문화교류에 대한 평가와 전망”, 『월간 아태지역동향』 2월호, 2006.

정우곤, “주체사상의 혁명적 수령론 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6권 1호, 1990.

조한범, “남북한 이질화와 사회문화교류협력”, 『남북한 관계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쟁점과 대책』, 통일문제 특별학술회의 자료집(1997.11.8.).

통일부 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설집』 (서울: 통일부, 2009).

KBS남북협력기획단, “국민 통일의식 변화추세” 『2012년 국민 통일의식 조사』 (서울: KBS남북협력기획단, 2012).

『연합뉴스』.

『통아일보』.

『주간동아』.

『천지일보』.

『한국일보』.

<Abstract>

A Study on Direction to Promote Social and 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n Seung Ho

South Korea maintains the free democratic system after 60 years since entering the cease fire agreement in July 27, 1953, on the other hand, North keeps the communism system. It means that the heterogeneity is severe generally in the politics · economics · social culture from the disconnection between South and North during the half century of the division. The institutional unification in the politics · economics · social system, that is, the single government of South and North Korea shall be established to overcome the heterogeneity absolutely. As it was shown in the case of Yemen, the unified government had been constituted by the package agreement type on the politics 23 years ago, but Yemen is in chaos situation without completing the unification in politics · economics · social culture. The conflicts and the chaos may be more heavily added than before the unification like Yemen when the discrepancy of the ways of thinking among South and North Korean people even though the institutional unification can be made in Korean peninsular. Therefore, we have to prepare the social cultural 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well as the institutional 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r.

The cooperation of South and North exchange shall be made aggressively in various fields in politics · economics · social culture to recover the homogeneity of the race and to overcome the heterogeneit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ich were arisen from the division. For this matter, it is necessary not simply to recover the racial homogeneity but towards to the developmental direction. The cooperation of South and North social culture exchange shall be made by standing on the culture relativism position out of the framework of understanding to modernize the underdeveloped North Korean social culture to that of South Korean. Accordingly, now it is a time to look back upon whether we approach to

North Korea through understanding in modernization position in cooperation of South and North social culture exchange.

Therefore, this study looked into the meaning of the cooperation of South and North social culture exchange in social culture unification. In addition, the methods to recover the social culture homogeneity and to over the heterogeneit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ere considered. The direction and our methods of approaching to create the unification culture in Korean peninsular were explored in this study.

Key Words

social and culture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South and North relation, North Korean society, social and cultural integration, building unification culture